

전문가들의 石油퀵림난 신설을

주어진 여건 즉 한정된 인력과 석유정 보수집 기능에서 출발한 「석유협회보」가 7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잡지로서 위치를 굳히게 된 사실을 독자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석유협회보」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수급전망, 시론, 정책자료, 석유산업계, 국내 외 동향 기술개발현황, 기술정보 그리고 특집기사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협회보」의 편집구성은 타분야 전문잡지와 비교하였을 때 상호 비슷한 내용으로 편집되어 있다. 「석유협회보」가 장년기의 특색있는 전문잡지로서 성장하려면 타전문잡지에 비교하여 특이한 편집구성을 가져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석유전문잡지로서의 특이성을 발굴하기 위하여 석유협회의 인적구성, 정보수집분석능력 그리고 석유업계에 종사하는 인력의 협회지에 대한 희망사항등 다각

적인 측면에서 분석 고려하여야만 하나, 우선 몇가지 필자의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 기술정보분야의 Code, Standard, Table 혹은 그래프 등을 별책부록으로 인쇄했으면 한다. 별책부록 인쇄란 석유관련기술 Data, Graph, Table 등 여러 전문기술잡지에 발표되어진 자료들을 독자가 필요에 따라 File에 정리수집할 수 있도록 표지와 같은 두꺼운 종이로 인쇄(물론 착색할 수도 있음)함을 뜻한다. 위와같은 기술분야 데이터란 각종정유공정 분야의 건설, 운전, 보수 및 안전에 관한 자료들이다. 이들 데이터는 직접기술데이터와 간접기술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기술 데이터란 정유공장의 필수 Equipment에 대한 운전, 보수 및 개조용 Table, Nomographie 등이며, 간접기술 데이터란 역시 운전, 안전, 특히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실험실적 측정방법(ASTM, DIN, BS, KS, JIS 등) 및 분석



辛 常 吉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분석실장)

66

정유산업을 이끌어 온 先輩들을 石油컬럼 執筆委員으로 부탁드려 그분들의 고귀한 경험담이 젊은 石油人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자. 또한 石油 이외의 他에너지源에 대한 國際情報도 조금쯤 실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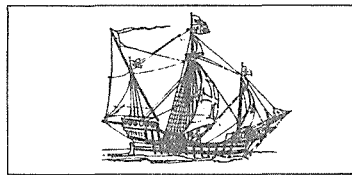
99

기기의 특성과 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자료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자료철은 특히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적 사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 石油관련 유전표시 지도와 국제원유 가격동향 그래프를 역시 별책부록으로 인쇄삽입하였으면 한다. 외국의 주요석유전문잡지는 수시로 별책부록 형식으로 가동중이거나 확인된 유전 및 국별정유공장의 위치, 용량을 표시한 석유지도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만일 「석유협회보」가 전세계 또는 지역별 유전 및 정유공장표시 지도와 국제원유가격동향 그래프를 독자에게 제공하게 된다면 원유와 석유류 제품의 교역분야에 종사하는 종합상사의 영업사원들을 새로운 독자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 他에너지源 즉 석탄, 원자력, 대체에너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면 한다.

石油전문잡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석유의 他에너지源에 대한 일반적인 각종정보(시장동향, 매장량, 가격비교, 수급전망, 국제교역현황 및 각국의 정책변화 등)를 전 지면의 10%정도 할애 하였으면 좋겠다. 정보의 편파적인 제공은 독자를 일방적 石油에너지원 분야에만 전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전문가가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렇게 유도해서도 안될 것이다.



「석유협회보」의 독자는 협의의 분류에서 석유전문가 혹은 석유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의의 분류에서도 에너지업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石油관련 컬럼난이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이룩한 경제개발계획의 결과로 현재 韓國의 산업잠재력은 높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스스로 평가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할 것 같다. 즉 석유협회보는 석유분야 전문가들의 경험을 컬럼으로 발표하여 우리 스스로 자신을 뒤돌아보며 개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필자가 제시한 4가지의 개선점을 추가할 경우, 「석유협회보」는 명실공히 석유전문잡지로서 장년기를 맞이하게 되겠지만, 이러한 개선은 우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인력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이제까지 韓國의 정유산업을 이끌어온 선배들을 石油컬럼 집필위원으로 부탁드려 그분들의 고귀한 경험담을 젊은 석유전문가들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석유협회보」의 무궁한 발전과 개선을 기대하며 석유협회 여러분께 건투를 빈다.